

iM FX Brief

케빈 워시 의장, 금리정책에 대한 침묵 이어질까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미국 재무부 바이백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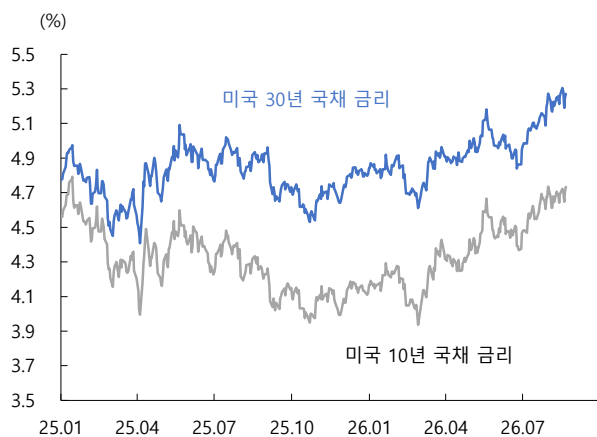
- 장기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미 재무부의 바이백(조기상환) 규모 확대 발표가 달러 약세 압력을 확대시킴. 바이백 규모 확대가 단기 달러 유동성 확대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낮추는 동시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법정화폐의 가치 하락(화폐 순도 저하 및 구매력 약화)에 대비해 금 및 가상화폐 같은 실물·대체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전략)을 자극한 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짐
- 유로화는 달러화 약세와 8월 제조업PMI지수 호조로 큰 폭으로 상승함. 8월 유로존 제조업PMI는 52.8로 5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달러-엔 환율도 하락함. 미 재무부의 바이백 확대에 따른 미일 외환시장 추가 개입 기대감 강화가 엔 강세로 이어짐
- 위안화는 7월 주요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추가 내수 부양 기대감 강화로 강세를 보임
- 호주 달러는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와 주요 원자재 가격 강세 등으로 1% 넘는 강세를 기록함
- 달러-원 환율도 달러 약세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환원정책 확대에 따른 환전 수요 증가 가능성 등으로 1,380원대로 큰 폭 하락함

	8월 21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8.8	-0.87	0.49
유로-달러	1.168	0.94	-0.57
달러-엔	159.0	-0.23	1.43
역외 달러-위안	6.72	-0.35	-3.65
호주달러-달러	0.72	1.23	7.46
달러-원	1,386.0	-2.08	-4.06

금주: 케빈 워시 의장, 금리정책에 대한 침묵 이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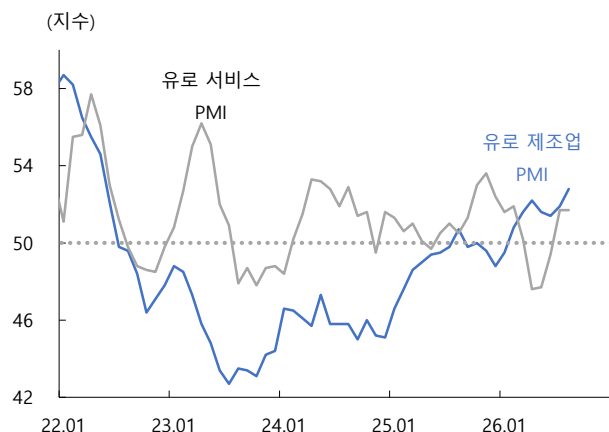
- 미 재무부의 바이백 후폭풍에 따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지속으로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정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케빈 워시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정책에 대한 힌트를 줄지가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임. 한편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의 불안 흐름이 이어진다면 달러화의 추가 약세 압력을 높일 것임
-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기대감이 달러-원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환전 물량과 관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환원정책 이벤트 소멸은 달러-원 환율 낙폭을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함.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360~1,410원으로 예상함

그림1.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유로존 8월 제조업PMI지수, 51개월만에 최고치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